2014년
5월 15일
제 23 호

MBC
mbcsau.com

社友會報

서로 도우며
즐 겁 고
건 강 하 게

● 발행처 (사) MBC사우회 100-702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TEL 02-722-7416 E-mail : mbcsau@mbcsau.com ● 발행 • 편집인 김수량 ● 편집장 김상옥

회원 단합대회, 5월16일(금) 양주 문화동산에서

사우회 창립 24주년 기념 회원단합대회가 5월 16일(금) 양주 문화동산에서 열렸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김수량 회장, 노서을 고문 등 22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김진희(편제)-엄기정(관리) 회원 등 8명이 처음으로 참가했고 김병덕(편제) 회원은 성치않은 몸으로 참석해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 MBC에서는 한기현 경영지원국장이 참석했다.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MBC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은 '2014년도 본-관계회사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느라 이날 단합대회에 함께하지 못했다.

김수량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MBC社歌를 들으면 외국에서 애국가를 들었을 때 처럼 가슴이 떨린다"면서 본사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한기현 국장은 "크고 멋있는 사옥을 지어 7월에 상암동 시대를 개막하게 되는데 이는 선배들이 초석을 깔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선배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이날 단합대회는 세월호 참사에 애도를 표하자는 김회장의 제의에 따라 일체의 건배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MBC에서 450명분의 갈비와 식사, 주류와 음료, 그리고 대형 버스 5대를 지원해 선배들의 생일 잔치를 축하해주었고 의료팀(이유진 간호사)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다. 모두 45명이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았는데 이상진(보도) 회원이 1등에 당첨돼 핸드 블렌더믹서기를 받았다. 2등은 신원호(기술), 정영수(관리)회원, 3등은 김영금(관리),임재륭(기술), 신견옥(관리)회원 등이 당첨되는 행운을 차지했다.

문기회(文記會), 'MBC 세월호 취재팀'에 격려금

문화방송기자회(회장 양영철)는 4월21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취재하고 있던 MBC 취재팀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목포MBC를 통해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상암동 MBC신사옥 내 「꽃집」 6월 20일 개업

사우회 수익사업의 하나인 상암동 신사옥 꽃집(花園)이 다음달 20일 개업한다. 사무처는 1,2차 설명회를 거쳐 3월 17일 화훼조경판매자협동조합(대표 김은주)을 신사옥 꽃집 운영자로 선정했으며 협동조합측은 4월7일 MBC 상가관리 담당부서와 꽃집 운영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

알림 / 사우회보 기술부문 편집위원에 김만섭 회원이 새로 선임 되었습니다.

사우회 회장단, MBC 안광한 사장과 첫 상견례

사우회 회장단과 MBC 새 임원진이 5월14일 여의도 63빌딩 백리향에서 첫 상견례를 가졌다. 김수량 회장은, "안사장의 리더십으로 MBC가 영광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문화동산과 토당송신소 농지를 사우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안광한 사장은 "MBC가 어느 때 보다도 많이 안정됐다"고 말하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사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사장은 또 사우회 모든 회원들이 상암동 신사옥을 둘러볼 수 있는 '홈 커밍데이' 를 올해 안에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사우회 신대근, 김용빈, 이용구, 백하현 부회장과 박종규 총무이사, 최준식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MBC에서는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과 한기현 경영지원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 클럽소식 |

등산〉 봄철 등산대회가 4월30일(수) 북한산 우이령길에서 열렸다. 우이령길은 한 때 출입이 통제됐던 곳이다. 이날 등산대회에는 무려 98명이 참석하는 대 성황을 이뤘다. 우이령입구에 들어선 회원들은 오봉전망대를 거쳐 쉼터에서 숨을 고른 다음 우이동으로 넘어가서 2시간 10여분간 7.1km를 걸었다. 사우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등산용 LED 랜턴 1개씩을 선물로 드렸고 두부찌개와 파전 등으로 차려진 점심식사 자리는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간의 정담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2면에 계속

회 원 동 정

우종범(편제)
국가보훈처 산하 골프장인 88관광개발(주)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우회원은 공모를 통해 선임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현우(ANN)
3월부터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실습지도 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구본홍(보도)
'살인피해자추모관' 초대 관장에 선임됐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인터넷상에 설립한 '살인피해자추모관'은 살인피해 유가족들이 추모위원으로 참여해 유가족을 지원하는 심리치료를 위한 회복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주철환(편제)
JTBC 대PD를 거쳐 4월 1일부터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취임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김광배(관리)
3월15일 서울 양천구에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또 같은장소에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돕는〈뷰티힐링카페〉도 함께 문을 열었다.

황선길(편제)
애니메이션 컬럼「다시 뛰자, 머털아」를 출간했다.
13번째 저서인「다시 뛰자 머털아」는 한국 애니메이션 현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애니메이션 컬럼집이다.

이주갑(편제)
MBC아카데미 사장 3년 임기를 마치고 서울예술대학교 겸임교수로 취임했다. 다큐멘터리 이론과 제작기획론을 강의한다.

하동근(보도)
JEI 재능방송 고문으로 4월3일 케이블 TV방송채널 사업사용자(PP)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신임 협의회장에 선임됐다.

안광한(편제)
4월 7~8일, 한국방송협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B(방송통신장비전시회) 2014'를 참관했다. 안사장은 이어 LA에 있는 MBC미주법인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차인태(ANN)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으로, 4월22일 탈북민(사)물망초 인권연구소 이혜경 박사를 초청해서「최근 남북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박영선(보도)
5월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됨으로써 제1야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가 되었다.
LA특파원, 경제부장을 거쳐 국회로 진출한 뒤에 국회법사위원장을 역임한 3선의원이다.

박석태(보도)
방송문화진흥회의 초빙교수로 선정되어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신문방송학을 강의한다.

| 클럽소식 |

골프〉 봄철 골프대회가 5월8일 충북 진천 에머슨 골프장에서 열렸다. 티업 예정시간 10분전까지 많은 비가 내려 20여분이나 늦게 시작됐으며 바람이 불고 날씨가 쌀쌀해 그라운드 컨디션도 정상이 아니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동한(관리) 회원이 73타를 쳐 우승, 77타를 친 임주완(ANN)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근접상은 강동균(편제), 감투상은 오정수(기술), 행운상은 윤홍섭(보도)회원에게 돌아갔다.
C&I 전영배 사장이 홍삼진액 44세트와 청결미 10kg짜리를 비롯한 시상품 5세트를 협찬해 주었고, 손목헌 이사는 골프공 10박스를 협찬했다. 지난 해 가을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권태섭(기술)회원은 우승트로피를 기증했다.

낚시〉
사우회는 4월24일 실시하려던 봄철낚시대회를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과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 한달 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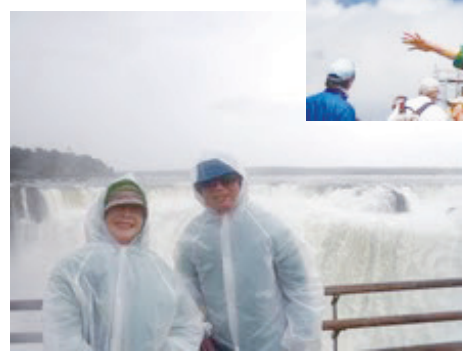
칠순에 받은 보너스-중남미 8개국 여행

김 휴 선(보도)

금년 2월, 아들내외가 칠순을 축하한다며 우리 부부에게 중남미 8개국을 2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군데를 되돌아본다.

먼저 쿠바의 '하바나'. 하바나는 마치 폐허 같은 도시였다. 건물은 고풍스러웠으나 색깔이 바래서 흉물스러웠고 무너진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나마 잘 단장돼 있는 혁명광장에는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호세 마르티 등 쿠바를 위해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지만 거리에는 걸인들이 많았다. 하바나에는 헤밍웨이가 5년동안 작품을 집필했다는 5층짜리 '헤밍웨이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511호에는 헤밍웨이가 생전에 집필하던 필기구 등이 보존되어 있고 다른 층에는「노인과 바다」를 비롯해「무기여 잘 있거라」「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 그가 쓴 많은 책들과 그가 애용하던 낚시도구, 사냥해서 잡은 짐승들의 머리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특히「노인과 바다」에서 등장하는 커다란 '청새치' 사진은 많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페루의 '마추픽추'. 우루밤바에서 협곡열차를 타고 한 시간 넘게 달려간 후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얼마간을 더 달려 마추픽추 입구에 도착. 다시 30여분을 걸어가니 마침내 해발 2400m에 위치한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의 정상이다. 산 꼭대기에 형성된 작은 도시지만 왕이 기거하는 신전을 비롯해서 태양의 불, 콘돌의 신전과 감옥 외에도 높은 곳 까지 물을 끌어 올려 농사를 짓는 농경지 조성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고적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브라질의 수도 리오 데 자네이루는 쌈바춤으로도 유명하다. 정상에서 바라본 '리오港'은 세계 3대 미항답게 아름다웠다.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 '이빠네마' 해변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리오 데 자네이루'서 하룻밤을 묵은 우리는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열린다는 '마라카나(Maracana)'경기장을 구경했다. 8만 7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은 지금 단장이 한창이다.



6월 13일이면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 '월드컵축구대회'가 브라질 전역에서 열린다. 32개국이 각축을 벌이는데 우리나라는 6월 18일 러시아와 첫 경기를 갖는다. '마라카나'경기장에서 30여분을 달려 케이블카를 타고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올라가자 '거대 예수상'이 나타났다.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다는 거대 예수상은 키가 30m이고 좌우로 벌인 손의 너비만도 28m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한다.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하루를 쉬고 '이과수폭포'로 향했다. 이과수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세 나라에 걸쳐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보면 폭포 전경을 거의 다 볼 수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거대한 '악마의 목구멍(Garganta del Diablo)'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르헨티나쪽 폭포를 보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입국 비자를 받은 뒤 꼬마열차를 타고 역에서 내려 철다리와 숲길을 도보로 20여분을 걸어야 이른바 악마의 목구멍이 나온다. 생김새가 목구멍처럼 둥근데다 폭포수 쏟아지는 '웅~' 소리가 마치 악마의 소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말로만 듣던 이과수폭포는 정말 장관이었다.

20일간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지만 이번 여행에서 특히 마음에 남는 일은,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부부가 오랜만에 연애시절로 돌아가 와인 한 잔을 시켜놓고 탱고 춤을 감상하며 앞으로 자식들과 같이 살아갈 미래를 얘기하던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이다.

경.조사

고희

윤풍기(관리)6/6 이연경(ANN)6/18 이원하(기술)6/25 김기도(보도)6/30
김동진(보도)7/12 이현규(보도)7/13 유민환(편제)7/16

회갑

김호석(관리)6/7 송기남(관리)6/12 정태모(관리)6/16 이기한(기술)6/28
박석태(보도)7/6 문기영(관리)7/7 조영배(편제)7/8 유재식관리)7/9
경정수(관리)7/12 이상범(관리)7/19 김명철(기술)7/28 정환웅(편제)7/29

결혼

장기태(관리)장남4/5 홍순흥(편제)장녀4/5 신무성(전주)장남4/19
김민호(보도)장녀4/20 전용립(관리)차녀4/27 김희철(관리)장남5/17
김익원(편제)장녀5/18 이운하(업무)장녀 5/19 권오승(보도)장녀5/25

부음

양진수(ANN)부친상3/12 오학균(기술)부친상3/20 목철수(보도)장모상3/22
강현식(편제)부친상3/24 金英澈(편제)모친상3/30(카나다)
인형식(업무)모친상4/6 이종화(대구)모친상4/14 이승열(보도)부친상4/14
김성한(관리)장모상4/19 정재호(관리)장인상4/28 윤영관(편제)모친상5/3
최화숙(ANN)모친상5/8 전진권(편제)장모상 5/15 황귀철(업무)장인상 5/21

– 金永哲(편제) : 3월12일 뇌출혈로 별세. 향년 65세. 1982년 입사해 26년간 카메라맨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촬영했다. 3월5일 운동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진 뒤 1주일만에 별세했다.

– 이만우(보도) : 3월13일 심근경색으로 별세. 향년 83세. 1962년 입사해 보도국 취재부장, 부국장, 총무국장, 대전-전주 지사장을 지냈다. 사우회 상근부회장과 문화보험 대표이사를 10여년간 역임하면서 사우회 발전과 문화보험 수익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 최문주(관리) : 3월23일 폐암으로 별세. 향년 80세. 5년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최근 폐암으로 전이됐다. 1964년에 입사했으며 총무부장과 부국장 등을 역임하고 1988년부터 6년동안 마산MBC 상무로 근무했다.

– 류근수(대전) : 4월3일 폐렴으로 별세. 향년 71세. 1971년 대전MBC 기술부에 입사해 5년간 근무한 뒤 한국교육방송공사 기술국을 거쳐 EBS 기술자문역을 역임했다.

– 이병석(관리) : 4월10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별세. 향년 73세. 4월6일 동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인채 병원에 입원한 뒤 4일만에 별세했다.

– 민창기(ANN) : 5월4일 대장암으로 별세. 향년 79세. 1961년에 아나운서 2기로 입사해 신인 시절 3년 6개월을 MBC에서 보냈다. 자신의 80평생을 정리한 「열정」이라는 책을 3월1일 펴냈다.

– 김중석(보도) : 5월11일 췌장암으로 별세. 향년 80세. 1963년에 입사하여 보도국 사회부 차장, 부국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한 뒤 1993년 진주MBC 사장을 지냈다.

회원/ 회비관리

평생회비

서문식(편제)3/6 양운수(기술)3/7 정 규(관리)3/14 오창식(보도)3/18
심원택(보도)3/20 권태석(관리)3/24 김진광(관리)3/25 권병국(편제)3/31
김형욱(기술)4/1 손목헌(기술)4/1 이상이(보도)4/8 천복용(기술)4/11
김성한(관리)4/25

연회비

3월 : 강현식(14) 고영석(11-14) 권오형(14-18) 권태수(08-14,80세납부끝)
김강정(15) 김기도(12-14) 김대수(전주,14) 김무길(14) 김승한(09-13)
김용빈(14-16) 김주배(13-17) 류달훈(10-14,80세납부끝) 박수명(12-14)
박종순(06-13) 박종완(13) 서상웅(14) 성창용(14) 심상수(13-14)
이건세(15-17) 이범수(08-14) 이용구(14) 이의열(13-14) 이현규(09-14)
장기태(14) 정승호(15) 정태성(14) 진성수(08) 차종식(14) 최홍림(14)
하재률(14) 홍순영(14) 洪鍾宣(10-14) 황길수(13-17)
황선영(15-17,80세납부끝)

4월 : 곽영범(14) 권태환(14) 김경준(11-14) 김영면(14) 김재현(14) 김종환(14)
김주영(14) 김희철(15) 박수효(10-14) 박원웅(10-14) 박창순(13-14)
신해명(14) 안계홍(08-13) 이경열(14) 이양휘(14) 이운하(14)
李廷五(12-14,80세납부끝) 李濬熙(13-14,80세납부끝) 임성전(13-14)
임재륭(10-14) 정경태(14) 정대용(13-15) 조병락(14) 조병영(10-14)
조한준(14) 한웅희(14) 황선길(09-14)

신규입회

權五勝(보도) 010-9273-1039 서초구 반포4동 메트로뷰아파트 1802호
權炳國(편제) 010-4872-0987 02-2646-7878
양천구 목동서로 130, 412-303 (목동,목동신시가지A)
權泰錫(관리) 010-9199-580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산2길 16-6
金振光(관리) 010-4305-1187 02-939-1387
노원구 동일로 250길 17, 301-203 (상계동,은빛A)
金炯旭(기술) 010-3732-5847 032-342-3632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284, 101-515 (역곡동,한국A)
朴來陽(보도) 010-5236-9732, 강동구 천호대로 1055 태영A 103-701
白鍾文(편제) 010-8915-2423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603-2002호
孫穆憲(기술) 010-8967-3512 02-2653-8184
양천구 신목로16길 30, 103-708 (신정동,목동현대A)
沈源澤(보도) 010-5385-3509 02-6326-6082
용산구 이촌로 248, 23-501 (이촌동,한강맨션A)
梁雲秀(기술) 010-9012-0258 02-6166-0661
금천구 금하로 750, 104-504 (시흥동,관악우방A)
吳昌植(보도) 010-5386-9343 파주시 금낭화길 67 (동패동 1715-1)
李相二(보도) 010-5249-9319 02-782-6675
용산구 서빙고로 31, 201-1702 (한강로3가,용산시티파크)
鄭 圭(관리) 010-3258-9867 02-6258-9867
강서구 양천로3길 17, 101-703 (방화동,동부센트레빌)
千福龍(기술) 010-4651-0510 02-3462-0510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42, 4-702 (도곡동,도곡한신A)

전화/주소 변경

편제 : 김용남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동길 102
김익원 강남구 개포로 310, 62-503 (주공1차A)
김현동 010-5257-7000 02-2634-3588
영등포구 선유로53길 35 신한하이빌 502호
박흥영 송파구 오금로32길 14, 110-2204 (송파동,송파삼성래미안)
손동용 010-5414-2442
여태성 010-6494-2237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41, 1605-2303 (일산동,후곡마을)

보도 : 김창식 010-5277-2289 031-577-2789
남양주시 덕소로 118-27 한솔강변A 102-1309
김철호 010-5249-9309
목철수 010-6285-6656
이낙용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 레이크폴리스1차 B-701 (장항동)
이문노 인천시 계양구 형제봉길 1, 305-501 (귤현동,계양센트레빌)

ANN : 김채영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 102-606 (서초동,유원서초A)

기술 : 금기우 010-3738-4761, 오정수 010-3896-5010
오학균 010-6238-5479, 윤상도 010-8734-7070
윤상호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65, 305-401 (풍동,숲속마을A)
하병호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109-1403 (흑석동,한강푸르지오)

업무 : 원정만 파주시 와석순환로 307, 206-1201 (목동동,현대아이파크)

관리 : 강인숙 중랑구 용마공원로4길 26 (용마동)
김영균 강서구 곰달래로35길 12, 2층 (화곡동)
박은숙 서초구 방배로 270, 가-908 (방배동,삼호A)
신홍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73, 101-1604 (우만동,월드메르디앙)
최대흥 010-6291-1126
최인준 성남시 분당구 운정동 922 산운마을 1107-1403

대구 : 서정호 대구시 남구 양지6길 89 (2층)
이종화 010-3527-9887
조무영 대구시 남구 대봉로4길 6-11

전주 : 김경준 010-3907-1745
남궁용영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183 (색달동)

이 사람

조 정 민(보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선교(宣敎)의 리더

Twitter에서 5월 현재 17만6천여명의 follower를 이끌고 있는 조정민목사는 "이 시대에 꼭 맞는 메시지 전달방법을 구사하는 목회자"로 불리운다.

2003년, 조정민기자가 imbc대표직을 사임하고 미국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술은 '밑 빠진 독', 골프는 싱글, 포커는 타짜 수준, 대형 교통사고를 수차례 겪고도 멀쩡한 不死身. 정치인이 되려고 방송기자를 택했고 청와대 출입기자, 9시 뉴스앵커 등 화려한 이력을 펼치던 그와 기독교는 좀 거리가 있어보였기 때문이다. 굳이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당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이를 신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한다. 어느 날, 골프연습장이 쉬는 것을 모르고 새벽에 나왔다가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회에 나온 교인들이 방언(方言)하는 모습들을 보고 틀림없는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해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교회에 접근했었다는 그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붙잡혀 회갑이 가까운 57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13년 3월, 남들 은퇴하는 나이인 63세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베이직교회(Basic Community Church)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의 출석 교인들이 몇 명쯤 되느냐는 질문에 출석 교인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 반문할 만큼(300명 가까이 된다) 그는 '보통 목사'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그가 트위터에 매일 써 올리는 짤막한 글은 동시에 10여개 외국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전달되고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은 조목사의 글을 360만명의 팔로워들에게 리트윗하고 있는데, 그는 기자시절 1분20초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훈련된 실력이 그 원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 또한 기자시절 몸에 밴 '말

하는 버릇'이란다. 이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가차없이 비판하고 냉소적이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 상처'를 입혔던 기억들이 지금 그를 아프게 한다. "기자란 주로 나쁜 소식을 많이 전하는 직업인데 나쁜 소식은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해요. 반면에 좋은 소식은 더 많은 좋은 소식을 만들어 내죠."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것이 3:1원칙, '세 가지 칭찬하고 한 가지 조언을 조심스럽게 덧붙이는 것'이다. "상대의 좋은 점을 찾는 노력, 칭찬과 격려의 말을 찾는 노력은 정말 값진 훈련입니다"

목사의 역할이란 "당신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즉 하나님과 사람들을 친해지게 만드는 전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많은 목사들이 '내 사람'을 만들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교회란 사람들이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 된 사람들이 한 몸이 된 공동체에서 생명이 완성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젊은 시절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였는데 지나고 보니 목회가 정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요즘 대형교회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여러 모양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하게 그러나 예리하고 분석적인 잔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들으며 그 또한 기자시절 익힌 내공의 결과라고 느껴진다. "모든 종교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출세하라고 안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면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기자출신 조정민목사의 간단명료한 종교관이다.

글/ 편집장

ESSAY

35년 만의 총경(總警) 승진

이 연 헌(편제)

"여기 경찰청인데요"

재작년 4월 어느 날, '뜬금없이' 경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사반장〉 관련해서 연락을 드린다는 것이다. 순간 3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추억의 네 글자 〈수·사·반·장〉과 언제 들어도 가슴 뛰게 하였던 타이틀 뮤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고단한 노동이나 다름없었던 제작 상황이 생각난다. 전화 내용은 〈수사반장〉팀 명예경찰 승진 위촉식이 4월 17일 10시에 있으니 경찰청으로 나와 달라는 것이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더니 프로그램 끝난지 15년이 지났고 퇴직 후 환갑·진갑 다 지낸 터에 명예경찰은 뭐며 승진은 또 뭔가? 참 흥미있는 놀람이었다.

그날 경찰청에서 거행된 승진위촉식은 조현오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진들과 〈수사반장〉을 마치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최중락 전 총경이 배석하여 거행된다. 명예경찰 경정 최불암, 이연헌은 총경으로, 경위 윤대성작가는 경감으로 승진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오청장은 "41년전에 시작하여 18년간 방송하고 종영한지 2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경찰을 대표하는 드라마에 해당한다" 며 〈수사반장〉이 보여주었던 경찰상을 우리 경찰 모두 되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그 즈음 경찰은 수원 살인사건 때문에 신뢰에 구멍이 뚫려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고 조현오청장은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설화로 곤혹스런 처지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는 상황의 와중이었다.

하지만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수사반장〉처럼 국민적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경찰 수사 신뢰에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유일한 드라마로서의 고마움, 여기에 당시 검·경 대결 논란이 한참 심각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수사의 주체성을 인정받아 경찰위상이 달라지는 분위기인 만큼 국민적 인식의 강화 계기로서 〈수사반장〉팀 명예경찰 승진을 결정했다고 한다.

〈수사반장〉은 1971년 3월에 시작하여 1989년 10월 종영까지 18년간 방송하여 〈전원일기〉의 21년과 함께 MBC 최장수 드라마로 기록되었다. 처음 PD는 연극연출가 허규씨였고 나는 AD로서 '제작기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경찰 수사실화를 극화하여 '민경친선, 범죄예방, 권선징악' 세 가지를 기획의도로 내세웠다. 강력사건 수사자료 제공과 극본감수, 촬영협조 등 전폭적인 경찰 협조를 의식해서 민경친선을 맨 앞으로 했다. 그 후 박 철, 유흥렬 PD를 거친 1년후인 72년 3월부터 7년간 내가 연출을 맡았다. 70년대 초 경찰은 내무부의 치안국 이었으나 그 후 치안본부가 되었다가 경찰청으로 독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민감한 관계다.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인 반면 범죄자를 잡아내야 하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라는 호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홍보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수사반장〉이 경찰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연출하던 시기인 1977년도 10월21일 경찰의 날 기념을 계기로 당시 치안본부장은 형사 역할의 연기자들과 작가, PD를 명예경찰로 임명했던 것이다.

〈수사반장〉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위촉 행사를 마련한 경찰 당국이 고맙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사전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참석했던 나로서는 아쉬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수사반장〉 18년간 내 이후 거쳐간 후배 PD도 많고 작가도 많았다. 그 중에서 다년간 집필한 작가나 연출자를 선정해 공을 기리는 방법도 생각함직 한데 그런 배려는 왜 없었을까 아쉬웠다. 아마도 자문을 최중락 전 총경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그랬겠다 이해할 수 있었다.

장수 프로그램은 누구 혼자 키워 내는 것이 아니다. PD와 작가가 핵심 역할을 하고 회사가 지속적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다. 또 여기에 출연자와 스탭, 지원 부서 등 참여한 연인원을 헤아릴 방법이 없다. 나는 프로그램 제작은 자식 키우기나 같다고 말한다. 낳고 기른 부모가 기본이지만 형제자매는 물론 교육이든 환경이든 그 성장 과정에 물심양면의 집체적 공헌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여에 필요한 사명의식과 그에 알맞는 품격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은 한 두 마디 주장으로 가름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MBC 프라이드가 존재 한다.

배우는 즐거움 / 하나

또 다른 生을 위하여

조 헌 모(보도)

중국 심양(瀋陽)에 늦깎이 유학생으로 혈혈단신 들어와 이제 겨우 두 달을 넘겼을 뿐인데 기분은 한 반년은 더 지난 것 같다. 눈이 휘둥그레지거나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불쑥 불쑥 나타나 평정을 잃을 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변화의 속도와 규모라고 해야겠다. 어디를 가나 이제 막 지은 것처럼 보이는 고층건물의 숲인데 또 그 옆은 무지막지하게 파헤치는 재개발 공사판이다. 부동산 재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욕망이 화근인데, 생활에서 겪게되는 가장 큰 문제는 만주뻘 천연 모래바람에 더해 실려 오는 공사장 악성 미세먼지다. 인후가 민감한 사람은 마스크가 필수적일 정도로. 그래도 아랑곳 않고 도처에서 나부끼는 분양 광고 문안의 골격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빨리 기회를 잡으세요~!" 이걸 어쩌랴! 작년 가을 사전답사 차 운남성(雲南省)의 성도 곤명(昆明)과 그 주변을 살펴볼 때만 해도 변두리라 개발의 시동이 늦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더 살펴본즉 가히 광대한 대륙의 전역에서 벌어지는 살인적인 개발 광풍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열에 아홉은 조형미없이 덩치만 우람한 건물들이라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바로 며칠 전,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인근 도시인 대련과 여순을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하면서 값싼 완행열차를 일부러 타 보았다. 차량 한 칸 정원이 118명인데, 아뿔싸, 입석까지 허용한다고 그렇게 빼곡히 들어찰 줄이야! 호기심으로 말 상대가 되어준 대학 초년생들과 실전 회화 경험을 쌓아가며 무료함을 달랬지만 가장 가깝다는 도시 대련을 꼼짝없이 5시간 반 넘게 타고 갔으니 완행열차 이용은 한 번으로 족할 경험이다. 다행인 것은 중국 일반인도 이미 환경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니 외지인 입장으로선 잘들 해보라고 빌어줄 밖에. 장님 코끼리 만지고 평하는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추가한다면, 사실 그들의 각성은 기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 지난 시절 우리 역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대련~여순 사이를 관통하는 장거리 고가도로가 곧 개통되는데 바로 그 위를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전동 협궤열차를 달리게 할 전력선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걸 반겨야 하나 아니면 부러워해야 하나?

심양,대련,여순....우리 고대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선의 소현세자, 연암 박지원, 그리고 안중근 의사 등 역사의 인물들이 각기 다른 연유로 밟았던 땅이 아니던가? 조용히 자문해 본다. "나는 여기에 대관절 왜, 무엇하러 와 있지?"

나의 법적 체류근거는 거류증과 유학생 비자다. 40여 년 전 익혔던 중국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1년 반 쯤 다시 공부하고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新HSK 5급 합격증을 받은 정식 언어연수다. 1936년 12월 12일 서안사변(西安事變)을 일으켜서 장개석으로 하여금 先항일투쟁으로 노선을 급전환시키고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장학량(張學良)이 초대교장을 지낸 동북대학(東北大學)이 만학의 터다. 동북대학은 현재 중국 동북 3성의 최고(最高)이기도 하지만 중국 근현대사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인지 교수들의 자부심 또한 만만치 않다.

각설하고, 60이 넘어 새로 시작해 배워 보려는 것이 어찌 언어의 능통함에만 있을까마는 읽기와 말하기 등 중국어에 어느 정도 능통하게 되면 뭐가 보여도 보일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능통하게 될까? 모를 일이다. 굳은 결심으로 중국행을 택했지만 사실 그러한 목표의 정점에 까지 가는 "도달"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여정 그 자체를 즐기면서도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경험이기를 희망한다. 중국어 표현으로는 "新生的新起点!"이 될 것인데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만학도의 섣부른 기개가 중도에 꺾이지 않도록 사우회 선후배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배우는 즐거움 / 둘

"한문감옥"이 행복이다

권 혁 화 (ANN)

한문공부를 시작한 것은 2011년, 사우회보에 한문동호회 회원모집 기사가 나오면서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한문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고 살아오면서 한문에서 좋은 글귀를 자주 얻어 쓰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참여하게 된 것이다. 처음 '통감절요'부터 시작할 때만 해도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어디에서 문장의 단락을 끊고 어떻게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았다. '통감절요'라는 책도 그때 처음 들었다. 하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특히 지도하시는 이건세 훈장님의 열정과 정성으로 주 1회 목요일을 기다리며 그날그날의 분량을 소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수업은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설서와 자전을 열심히 뒤지고 해석을 준비하여 발표하면 훈장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셨다. 그러다보니 공부가 많이 되었고, 한문문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씩 음미하게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통감절요''격몽요결''논어'를 공부하였고 작년 6월부터 '맹자'를 공부하는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입학한 고전번역교육원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 부설이다. 한문번역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설립하였으며 1970년에 한국고전연수원이 개원되고, 1974년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이 개원되면서 교육생을 육성하였다. 매년 1월말에 입학전형을 통해 서울 50명, 전주 20명, 밀양 10명의 신입생을 공개 모집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나이 제한은 없다. 시험과목은 四書 중 논어와 맹자를 위주로 번역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한문동호회에서 적극 권유하여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자칫 불합격으로 망신당하지 않을까 싶어 2주간의 휴가를 얻어 동네 열람실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시험준비를 했고 다행히 합격했다. 앞으로 3년간은 연수기간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사서(논어、맹자、대학、중용)를 비롯하여 「통감절요」「시경」「서경」「주역」「춘추좌전」과 「소학」「제자백가」「고문진보」「사기」「성리서강독」 등을 배우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얼마 전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많은 자극이 되었다.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不動心의 마음으로 전 과목 100점을 목표로 하여 각고의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는다. 연수과정을 마치고 전문과정 Ⅰ과 Ⅱ를 각 2년씩 도합 4년을 더 공부해야 비로소 고전번역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 서서히 한문공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요령도 생기고 한문을 대하는 기본자세가 자리잡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문을 "공부하는 감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내용이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안들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삶의 태도 또한 새로워지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불안하기만 했던 마음도 거의 사라지고 지난 날에 대한 반성도 기준이 확연해져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 같다. 곁들여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심지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밑받침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다.

공부는 물과 비유하여 盈科而進(구덩이를 채운 다음 나아간다)으로 성취되며, 初學三年 天下無敵 再修三年 寸步難進(처음 삼년에는 천하가 당할 자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이후 삼년에는 조금이라도 나아가기가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된다)를 거치지만, 항상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고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신 사우회와 공부하도록 배려해준 회사와 가족과 동료,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나이 60세에 시작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漢學의 향기로 더욱 빛내도록 "한문감옥"에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해본다.

MBC C&I 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연구개발타워 12층 **T.** 02-789-0100 www.mbccni.co.kr

MBC C&I